

Issue Comment

2025. 2. 17

엔터테인먼트

1 월 음반 수출 동향



엔터/레저

Analyst 김민영

02. 6454-4884

minyoung.kim02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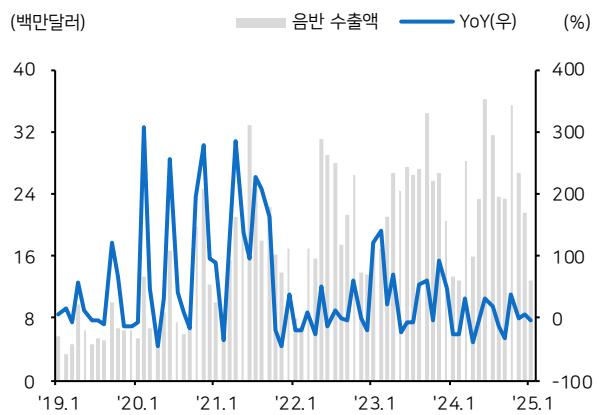
1월 음반 수출액 데이터

- 전체: 1,281만달러 (-4.3% yy, -41.0% mm)
 - 미국: 170만달러 (-39.4% yy, -10.9% mm)
 - 일본: 156만달러 (-61.0% yy, -71.7% mm)
 - 중화권(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)
: 694만 달러 (+76.5% yy, -29.9% mm)
 - 동남아시아(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
: 48만 달러 (+23.4% yy, -61.1% mm)
 - 유럽 및 영어권(캐나다, 프랑스, 영국, 독일, 호주, 네덜란드)
: 118만 달러 (-18.0% yy, -35.1% mm)
- 국가 비중: 미국 13.3%, 일본 12.2%, 중국 33.7%

수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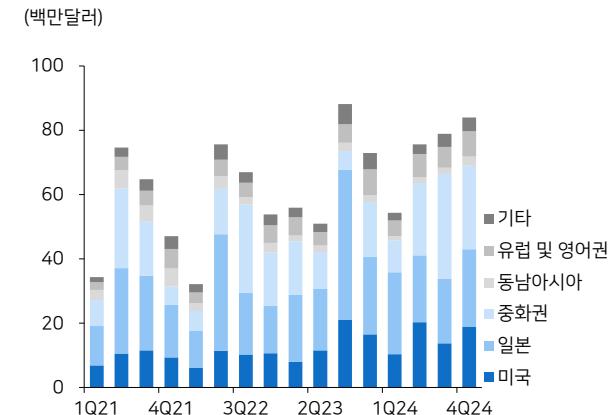
- 1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은 1,281만 달러 (-4.3% YoY, -41.0% MoM)를 기록. 24년 1월에는 ITZY, 여자아이들, 엔믹스 등이 컴백한 반면, 25년 1월에는 부석순 외 주요 컴백 일정이 부재. 르세라핌, 엔믹스, 트레저, 블랙핑크 솔로 등 주요 컴백 일정이 시작되는 2-3월에 걸쳐 수출액 회복할 전망
- 1월 중국(+112.5% YoY), 중화권(+76.5% YoY), 동남아시아(+23.4% YoY) 음반 수출액은 전년 대비 성장. 중화권 음반 수출액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성장하며 회복세 지속. 2023년 대비해서도 +51.9% 회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
- 2025년은 BTS, 블랙핑크 등 Mega IP들의 활동 본격화 및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, 신규 IP 증가로 음반 수출액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

그림1 월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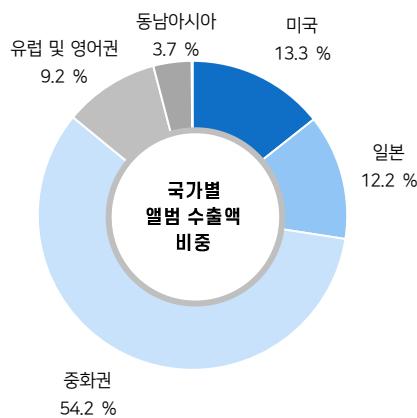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지역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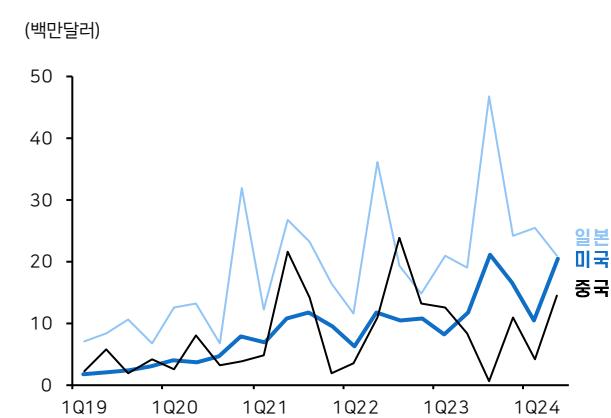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1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분기별 미국, 일본, 중국 수출액 추이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주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